다중접촉 업무자 마스크 못 구해 ‘발동동’

“일주일 2장으론 턱없이 부족” 시내버스 기사 공급 끊길 위기
“침에 젖은 마스크 재사용” 택시기사·요양보호사도 ‘막막’

“하루종일 착용하고 있는데 이틀에 한번 꼴로 주는 마스크조차 다음주 월요일까지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걱정이됩니다.”

정부가 마스크 구매를 1주일에 1인당 2매씩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에 돌입하면서 시내버스 기사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접촉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마스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전체 마스크 생산량의 80% 이상인 공적 판매 물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다중 접촉자나 공공업무 종사자도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광주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측은 지난 1월부터 제공해왔던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3일 예정됐던 마스크 공급 계획을 미뤘다. 조합측은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문의하고 있지만 대부분 연락조차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난색을 표했다. 조합측은 다음주 16일까지 최대한 확보,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조합측은 지난 1월 31일 마스크 4080개를 공급한 것을 비롯, ▲2월 5일 2000개 ▲2월17일 2200개 ▲2월24일 1만개 ▲2월19일 6500개▲2월28일 1만개 ▲3월10일 7500개 등 4만2280개(2만개 광주시 제공)의 마스크를 10개 회사 2500명에게 제공해왔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은 40일간 2500여명에게 1인당 평균 16.9개의 마스크를 제공한 것을 고려하면 2.3일에 마스크 1장씩 제공한 셈이다.

이마저도 당분간 어렵게 되면서 버스기사들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 시내버스기사는 “가족이 줄서서 구매한 공적마스크를 줘 다행히 버티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며 “일부 기사의 경우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2일 이상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시내버스 기사들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점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택시기사들도 비슷하다. 조합측도 최근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 사실상 기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한 상태다.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은이달 초부터 광주시의 협조를 받아 4번에 걸쳐 1만2000장을 택시기사 3300여명에게 제공한 게 전부다. 1인당 4장꼴이다.

이미 택시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줄면서 최근 2개월 간 200여명의 택시기사가 업계를 떠나는 등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광주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부터 4800명의 기사들에게 1인당 2장 제공했을 뿐이다.

지난 11일 광주시 남구청 앞에서 만난 택시기사 이모(35)씨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면마스크를 빨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다중접촉을 하는 요양 서비스직 등도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지역 요양원 등에서 활동하는 7만여명의 요양보호사 등은 코로나 확산도 마스크는 물론 손 소독제 조차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박선화 광주요양서비스지부장은 “실제로 7만여명의 요양서비스직 직원들이 마스크를 달라고 하면 잘릴까 봐 마스크 요청 등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3500여명 정도는 보호자가 코로나19가 사태 잠정 해제 될 때까지 보호 중단을 요청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한영 기자 young@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이틀에 하나 꼴로 마스크를 지급받고 있어 자칫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채 운행을 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12일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역에서 승객을 맞이하고 있다.

오늘의 날씨

해뜸	06:46	달뜸	22:49
해짐	18:38	달짐	09:09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 주	구름많음	5/12	보 성	구름많음	1/13
목 포	구름많음	5/10	순 천	구름많음	5/15
여 수	구름많음	7/14	영 광	구름많음	3/10
나 주	구름많음	3/12	진 도	구름많음	4/11
완 도	구름많음	6/14	전 주	구름많음	4/12
구 례	구름많음	3/13	군 산	구름많음	4/10
강 진	구름많음	4/13	남 원	구름많음	2/11
해 남	구름많음	2/13	흑산도	구름많음	7/9
장 성	구름많음	2/1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먼바다(북)	북~북동	1.5~2.5	북~북동	1.5~3.0
	먼바다(남)	북~북동	1.5~2.5	북~북동	1.5~3.0
남해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1.0~1.5
	먼바다(서)	북~북동	1.0~2.0	북~북동	1.5~2.5
	먼바다(동)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 생활지수

감기	보통
뇌졸증	보통
미세먼지	보통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52	04:47
	22:11	17:05
여수	05:26	11:42
	17:40	--:--

◇ 주간 날씨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1/11	2/9	-1/11	2/15	4/15	4/18	7/19

전남교육청 학원·교습소 비대면 온라인 교습 한시 허용

전남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학부모들의 학원수업 결손에 따른 학력저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학교 개학 전까지 학원과 교습소의 비대면 온라인 교습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전남도교육청은 12일 “학원·교습소의 휴원을 적극 유도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기 휴원에 따른 학원·교습소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온라인 교습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장석웅 교육감과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남지회와의 면담에서 연합회 측은 “비대면 온라인 교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비대면 온라인수업 허용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건의했고,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교육청 고3 새내기 유권자 동영상 선거교육

‘코로나19’ 확산에 학사일정이 연기되면서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투표하는 고3 학생을 위한 선거교육 일정이 바빠졌다.

1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3월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고등학교 등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코로나 확산 사태에 따라 영상자료를 통한 비대면교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동영상 교육자료를 활용하고, 학교별 상황에 맞춰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선거법 설명회 역시 현재로선 집합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일정을 조정하는 한편 집합연수가 아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3일 도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교육지원과장과 교육지원청 선거교육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8세 유권자 선거법 운용기준과 선거교육 교재 활용을 내용으로 선거교육 담당자 연수를 개최했다.

하지만 3월 셋째주부터 학교별로 시작하기로 했던 ‘새내기 유권자 교육’은 연기를 유도하거나 영상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선학교와 정치계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자칫 선거교육이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체 선거교육을 준비했던 학교들도 마음이 급해졌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4월 15일 총선까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개학한다고 해도 선거일까진 3주 정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2일까진 불과 10여 일 밖에 남지 않는다.

학교에선 학생들에게 선거교육 자료를 미리 전달해 가정학습을 하도록 하고, 이후 추가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갖는 고등학교 재학생 유권자는 광주 5300여 명, 전남 5900여 명으로 총 1만12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광주 북구 100만원까지 지원

광주시 북구가 오는 31일까지 음식점 이용 편의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2020년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교체를 지원해 외국인이나 움직임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식사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기존의 좌식테이블을 2조(의자 8석) 이상 입식테이블로 교체를 희망하는 업소이다.

지원대상은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스트 엄광섭 교수팀, 소형화 가능한 새 배터리 개발

지스트 공동연구팀이 안정성과 용량을 극대화하면서도 크기를 절반 이하로 줄인 소형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모든 전자제품에는 배터리가 장착돼 있으며, 특히 대다수 전자기기가 휴대편의를 위해 소형화됨에 따라 배터리의 크기를 축소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신소재공학부 엄광섭 교수팀과 홍익대 정재한·경희대 이정태 교수 공동 연구팀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전기 저장 용량을 유지하면서, 절반 이하로 소형화할 수 있는 고용량 배터리를 개발했다. 이 같은 소형 배터리가 제품에 사용되면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게나 크기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체 개발한 기술로 복잡한 추가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상용화가 매우 용이하며, 현재 특허 출원 중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